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박영숙(본재단 이사장)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부'란 아무나 할 수 있는 나눔의 행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기부가 재벌들의 거액 기부이거나, 아니면 김밥 할머니나 샴바느질 할머니들이 안쓰고 모은 뽕뽕돈을 쾌척하는 등의 사연이 얹힌 경우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에 와서 출범한 한국여성재단을 포함한 공익재단들에 의해 시작된 누구나가 참여 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언론사와의 공동캠페인으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풍토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기대된다. 언론이 앞장서서 '기부란 액수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돈만이 아닌 재능, 시간 등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라고 알리기 위해 작지만 아름다운 나눔의 사례들을 기사화하고 있는데서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하고 있어 다행이다.

건전한 기부문화는 특별한 소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참여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기부문화의 뿌리를 우리는 1962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건국정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부와 자원봉사'는 이들 청교도들이 신천지에 상륙당시 메이플라워 선상에서 선포한 선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국가를 위해 자신의 수입과 시간의 일부를 헌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서약은 성서에서 말하는 '십일조'의 이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인의 나눔의 정신이 이제는 생활화되어서 온 국민이 수입의 일부, 시간의 일부, 그리고 재능의 일부를 기꺼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바치고 있는데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다.

지금까지 척박하다고만 여겨졌던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에도 서서히 훈훈함이 더해 가는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컸다. 앞으로 확산되어야 할 기부문화 조성에 있어서 언론에 기대하는 바는 막중하다. 여기에 여성재단이 언론에게 추가로 기대하는 것은 성차별이 없는 기부문화 형성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원초적으로는 재단의 홍보력 부족을 탓해야 하지만 여성재단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 또는 외면은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이중삼중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말이 되면 창립 5주년이 되는 한국여성재단이 기금모금을 하고

4,00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평등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활동지원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연이 없을 수 없고, 세상에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한 사례들도 있어 언론에 보도의뢰를 해보지만 거의 묵살당하고 있는데서 언론의 성차별을 의식하게 된다.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언론보도의 인식함은 결국 여성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얼마전에 있었던 일로써 여성들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CEO가 그의 유산을 여성을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선택한 기부처는 여성재단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여성재단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고 있었으나 신뢰할 수가 없어서이거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어느 쪽이었거나 여성재단으로서는 크게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다짐한 것은 여성운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여성차별의 뿌리다 넓게 그리고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데에서이다.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운동을 종식시키는데 있다. 여성운동의 존재이유를 뿌리 뽑는 작업이다.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함께 우뚝서서 사회를 만드는 일을 위한 재단활동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여성운동을 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게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회 여러 부분에서 여성들이 약진하는 여성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을 체감하면서 사회 각계가 평등사회의 패러다임을 향해 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